<◇ 창간1주년 기념 특집Ⅱ: 석유화학 채산성 분석>

“ 공룡은 왜 지구에서 사라졌는가? ”

■ 세계 화학경기 전망 ■ 석유화학 수급 · 가격 전망
■ 삼성종합화학 채산성 분석 ■ 현대석유화학 채산성 분석

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!
이 물음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. 「좋아질 것이다」「어렵다」「극히 불투명하다」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「언제」「어떻게」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는 없는 상태이다.
상공부를 비롯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, 1/4분기 가동률이 97%선으로 100%에 가깝고 중국 수출이 3배나 늘어나는 등 호조국면을 맞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. 가동률만을 놓고 평가한다면, 미국 · 유럽의 평상시 평균가동률 85~90%보다 10%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호황국면임에는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.
그러나 가동률과 함께 가격의 중요성을 직시한다면, 내수의 일부 및 수출가격이 「변동비」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태에서 「호조」니 「정상화」니 하는 언어유희를 즐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「정상화」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에 틀림없다.
「낙관론자」들의 주장대로라면 삼성 · 현대의 대규모 컴비나트 건설은 아주 잘된 일이며, 「비관론자」들의 주장대로라면 절대 건설해서는 안되는 또는 연차적으로 2~3년 간격을 두고 건설 · 완공했어야 했다.
가동률 97%의 호조 속에서도 「적자 불가피」라는 뼈아픔이 석유화학기업 경영자들에게서 쉽게 흘러나오고, 「적자생존」이 곧 실현되리라는 주장도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다.
본지는 「낙관론」과 「비관론」을 정확히 투영,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조2000억~1조3000억원이 투자된 삼성 · 현대의 「현재」를 분석해 본다.
이번 삼성 · 현대의 「채산성 분석」은 두 기업을 비난하거나 사업성을 왜곡 ·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, 오늘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·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.

<화학저널 1992/5/15>